

New On Series: Homestay on Earth



PUBLICATION DATE November 2022

FORMAT Softback

EXTENT 188 pages

CATEGORY Fiction

SIZE 140*210mm

RIGHTS World Available

The 'NEW ON' series supports young writers' diverse and innovative attempts with colourful, modern illustrations. Meet the striking stories from writers who will shape the future of children's literature.

<Homestay on Earth>

The story appears to explore the concept of a homestay or hostel where beings from diverse races, cultures, and even extraterrestrial travelers come together. The term "aliens" in this context refers humans who cannot blend into society for some reason. This story starts with the idea of who is considered a stranger or an outside on Earth, raising questions about how society views and treats individuals who are different from the perceived norm.

There are a range of characters appears: "Good rice-cake", who transforms into different animals and carries an animal encyclopedia, "Words become a seed", who produces seeds that sprout when absorbing someone's voice, and others like them seem to add to the creative and fantastical nature of the story. This provides a thought-provoking narrative that encourages readers to consider the complexities of identity, diversity, and societal norms.





❶
 가지않지만 종이집 천사로 얘기하니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
 과 통신하는 기분이었다. 편지 내용이 편안해왔다. 난 일
 부에 눈을 번 곳으로 들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 다 들어
 줄게. 난 지금 내일 아주 멀리 떠
 어갈 행상에 있는 거야. 언 행
 성과 통신한다고 생각하면 편
 하게 말할 수 있거든."

"이것도 놀아야?"

"응. 내가 만든 상상놀이 어
 떤 때 자주 했어. 혼자 말하고
 혼자 달하던 했지만 이렇게
 말어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진짜
 야. 너도 한번 해봐."

난 종이집을 꾸어 대
 고 가다웠다. 가랑이는
 꼭에 건 편지봉을 만지

각지라도 조심히 말을 꺼냈다.

"오늘— 우리 별을 따내고 싶어
 서 에이전사에 찾아갔어. 근데 내
 눈을 보더니 그러는 거야 지구에서
 이 편지봉에 달린 노래를 조사하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만일 그제라도 바뀌지 않는다면 돌아
 오지 않아도 좋다고 했어. 사실상
 지구로 쫓겨난 거지."

처음 듣는 이야기라 겁먹을 줄
 가랑이가 왜 그렇게 초조하게 비밀
 을 찾았는지 어림없이 알 것 같았
 다 하지만 내어치 않고 조용히 듣
 기만 했다.

"날 혼자였어. 다음 날 돌연변이
 취급받거든. 나만 빼고 모두 우리 별
 차릴 권한 보았을 눈을 가렸으니까
 지구를 달은 푸른 눈은 불쌍하다고.

깊은 밤 폭도도트, 인스타그램 샵에서 들었다. 눈을 떠
 보니 보았을 문방들이 내 방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가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리고는 할말 세도 없이 내 방으로 이르러서 들어왔다. 너무
 놀라 몸뚱이 할 수 없었다.
 가랑이는 소리 없이 창문 다가왔다. 지구를 달은 푸른 눈
 동자가 내 눈을 들여쳐라 보고 있었다. 가랑이의 새끼손가락
 이 정확히 내 새끼손가락 끝에 닿아 있었다. 그 순간, 가랑이
 가 잔잔한 입술로 말했다.
 "널 울렸어 왜?"
 가끔 내 종이 두꺼운 겁쟁이 사여 있는 상상을 했다. 어떤
 울이는 한해의 형제 될 수 있는 밤수 거머 같은 걸로. 누구에
 게도 울리지 않고, 누군가를 울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 본
 적 없는 나를 가랑이가 울렸어 했다. 가랑이의 새끼로.
 "날 가릴 수 있게 이럴까—"
 가랑이 손끝에 닿았던 보았을 문방들이 내 새끼손가락으
 로 스크롤 스며들었다. 보았을 것으로 빛나던 자리가 서늘하여
 나 아래 미스해왔다. 생각했던 것만큼 무성진 않았다. 오지

